

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, FCC와 정책 공유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

입력 : 2016.04.17 12:44 | 수정 : 2016.04.17 12:42

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톰 휠러(Tom Wheeler)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(FCC) 위원장을 만나 최신 방송통신 시장 동향 및 규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.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~15일 미국 FCC와 연방거래위원회(FTC)를 방문했다.



▲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(오른쪽)은 톰 휠러 미 연방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양국 실무위원들이 시장 동향 및 규제 정책을 공유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./미래창조과학부 제공

두 기관 수장이 만난 것은 지난해 4월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 이후 두 번째다. 최 위원장은 FCC가 추진 중인 인센티브 옥션,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, 망 중립성,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휠러 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했다.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양국 실무위원들이 시장 동향 및 규제 정책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정책 협력 채널이 곧 가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

이번 방미 일정에서 최 위원장은 테렐 맥스위니(Terrell McSweeney) 미국 연방거래위원회(FTC) 상임위원, 전 FCC 위원장인 케빈 마틴(Kevin Martin) 페이스북 수석부사장, 데이비드 폰테인(David Fontaine) 크롤(Kroll·정보보안회사) 대표이사, 김환 셰파드물린(Sheppard Mullin) 소속 변호사도 만났다.

최 위원장은 맥스위니 FTC 위원과는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(백도어 프로그램 제작) 논란,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. 페이스북 측에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최 위원장은 “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범 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
 [프린트](#)  [닫기](#)

Copyright (c) chosun.com All rights reserved.
Contact webmaster@chosun.com for more information.